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박종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A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Pacific Alliance

Chong-Suk Park^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egu Catholic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0, Revised 16 December 2020, Accepted 21 December 2020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trade relations centered on the Pacific Alliance (PA), a major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reinforce economic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improve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ccess, the study will approach the topic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PA with various statistics and literature.

Findings -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hanges in import-export goods between Korea and the PA, as trade is focused on specific items. Second, alth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the PA is centered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there should be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by countries and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mmercial cooperation. Korea currently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Peru, and Columbia, but not with Mexico, the largest trading partner among the PA. Therefore, Korea must take active measures to sign an FTA with Mexico, which has been put on hol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Latin America has the most thriving market when it comes to Free Trade Agreements worldwide. With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Pacific Alliance (PA) in 2012, the economic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faced entirely new circumstances. Reinforc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PA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erms of entering and dominating the Latin American market.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Pacific Alliance, and corporations that aim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fac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the Pacific Alliance and its prospects and analyzing the trade relations with Korea, this study will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corporations that wish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Keywords: Pacific Alliance, FTA, Latin America, Commercial Cooperation

JEL Classifications: F15, N76, O54

^a First Author, E-mail: favianp@cu.ac.kr

I. 서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시장확보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총 16건이며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완료하였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지만 거대 지역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0년에는 페루와의 협상을 타결하였고 추가적으로 2012년에는 콜롬비아와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남미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중남미 각국별로 역내무역의 증진과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지역내 최대 경제통합체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인구 2억 9천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출범 이후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회원국들간의 갈등과 역외국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은 남미공동시장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TA)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에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의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의 주요국들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보다 개방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2020년 중남미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태평양동맹국들은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즉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비교할 때 태평양동맹국들의 경제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태평양동맹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태평양동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Lim Tae-Kyoon and Yi Si-UN (2013)은 기존의 중남미지역경제통합체와 태평양동맹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Park Chong-Suk and Lee Kil-Nam (2015)은 한·중남미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교역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태평양동맹의 출범으로 중남미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KOTRA (2020)는 태평양동맹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시장잠재력과 교역상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평양동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중남미지역과의 지리적인 접근성과 언어적인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신규시장을 개척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태평양동맹과의 경제협력은 중남미지역시장의 선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통합체로 새롭게 떠오른 태평양동맹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태평양동맹(PA)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태평양동맹의 출범배경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지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내 무역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통합체

1) IMF에 따르면 2020년 태평양동맹국의 경제성장률은 멕시코(1.3%), 칠레(3.7%), 페루(3.6%), 콜롬비아(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 구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년 서명된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ón)을 모체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0년대 중남미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통합체로 평가를 받았다(Raul Emilio Vinuesa, 2006; Nikolaos and Nicolas, 2008). 하지만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한 출범초기와 달리 회원국들 간의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지역내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특히 남미공동시장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은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비교적 중남미지역내에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통합체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남미지역의 GDP규모는 5조 7천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태평양동맹의 GDP규모는 2조 7백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3%를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의 출범은 2010년에 개최된 제20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기간에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정상들이 경제통합체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2011년 4월에 공식적으로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리마선언(Declaration of Lima)을 통해 태평양동맹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 6월 기본 협정문이 채택되었고 동년 11월에는 호주를 포함한 5개국이 옵서버국으로 참가하였으며 2015년 7월에 정식으로 태평양동맹의 협정이 발효되었다. 태평양동맹은 회원국간 물품, 서비스, 자원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통한 회원국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²⁾특히 남미공동시장과 달리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마련하고 특정국에 대한 투자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공통 목표로 삼고 있다.

Table 1. The Development of Pacific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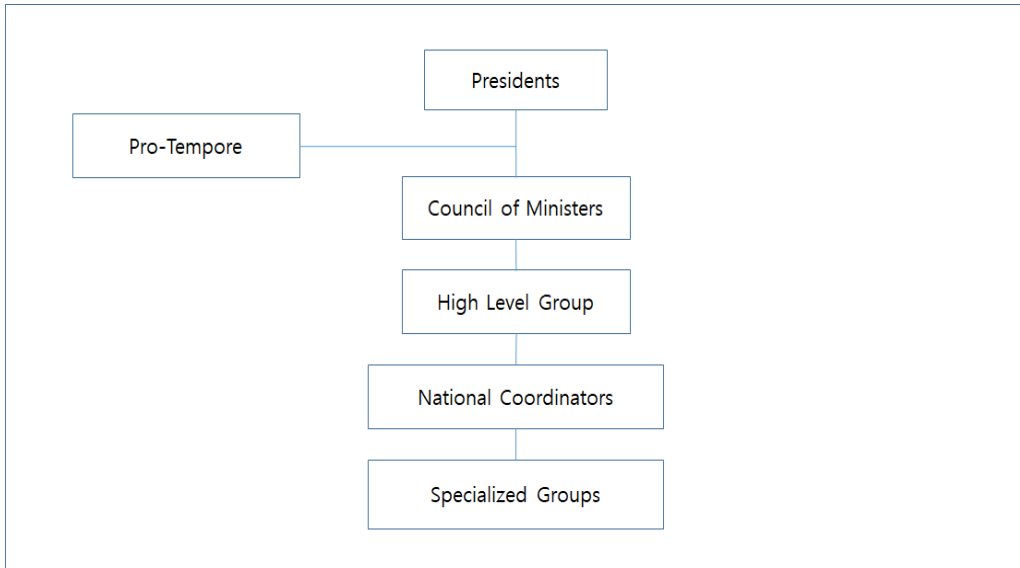
Major Contents	
2010.12.03. ~ 04.	The four presidents (Mexico, Chile, Peru, Colombia) agreed on the need to form an economic alliance
2011.4.28.	Issued the Declaration of Lima, a statement of intent to establish the Pacific Alliance
2011.12.4.	The 2nd presidential summit
2012.6.6.	The four presidents signed a pact officially creating it.
2012.11.17.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Spain, Uruguay (Observer)
2015.7.20.	Entry into force

자료: alianzapacifico.net

2. 태평양동맹의 구성 및 운영

태평양동맹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상호간의 경제협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의 정회원국은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이고 미주, 아시아, 유럽지역의 국가 중 총 59개국이 옵서버로 가입되어 있다. 태평양동맹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국들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며,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약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Lim Tae-Kyoon, 2014). 태평양동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정상회담과 회원국 통상장관들의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실무그룹 및 스페셜그룹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의장국의 의장직은 1년씩 맡게 되는데 2020년 현재 칠레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 <https://alianzapacifico.net/en/what-is-the-pacific-alliance/>

Table 2. Institutional Structure of Pacific Alliance

Source: alianzapacifico.net

태평양동맹의 장관급 회담에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관급회담은 실무그룹을 비롯한 하위 그룹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금융통합, 인프라투자 등 회원국간 경제·금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에 한번 회동을 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동맹은 회원국의 경제인들로 구성된 경제인 협의회(Business Council)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을 중남미지역의 다른 지역경제통합체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Yoon Sung-Wook, 2019). 태평양동맹은 개별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남미지역에서 거대 지역경제통합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 운영 목표를 세우고 있다.

III. 태평양동맹(PA)과 한국의 교역 현황 및 문제점

1. 태평양동맹과 한국의 교역현황

1) 수출입금액 규모

중남미지역에 있어서 기존의 대표적인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과 한국간의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2016년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수출금액은 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44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2017년에는 66억 달러까지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108년부터는 50억 달러대의 수출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4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9년에는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내었다. 2020년 3분기 초까지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수출입금액 모두 20억 달러대로 수입규모가 조금 높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남미공동시장이후 출범한 태평양동맹과의 수출금액은 2016년에 130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150억 달러대에

진입을 하였다. 특히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2016년에 91억달러에서 2017년부터는 10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수입규모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현재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남미공동시장과의 교역현황과 유사하게 수출보다는 수입규모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입규모의 불균형은 한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3. Korea's Exports/Imports by Regional Economic Bloc

(Unit: Million USD)

	MERCOSUR		Pacific Alliance	
	Export	Import	Export	Import
2020(01~07m)	2,357	2,834	5,416	7,649
2019	5,383	5,373	14,027	13,153
2018	5,693	4,492	15,078	12,872
2017	6,602	4,528	14,188	10,993
2016	5,475	4,462	13,338	9,125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0).

한국과 태평양동맹간의 교역현황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멕시코와의 교역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멕시코 수출금액은 총 9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1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로 2016년 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 12억 달러를 나타내며 멕시코와 동일하게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2016년에 11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나타냈지만 2017년부터 계속 수출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2017년까지 8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유지하였으나 태평양동맹의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오히려 2018년부터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4. Korea's Exports to Pacific Alliance

(Unit: Million USD)

	2016	2017	2018	2019	2020(01~07m)
Mexico	9,720	10,932	11,458	10,927	4,430
Chile	1,611	1,530	1,807	1,214	387
Peru	1,154	913	802	743	267
Colombia	853	813	1,011	1,143	332
Total	13,338	14,188	15,078	14,027	5,416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0).

다음으로 한국과 태평양동맹국간의 수입규모를 분석해보면 멕시코, 칠레, 페루와 콜롬비아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멕시코의 경우 2016년 36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1억 달러로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칠레의 경우에는 2016년에 37억 달러로 멕시코와의 수입비중보다 일시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페루의 수입금액은 2016년에 12억 달러였으나 2017년부터 2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입금액은 2016년 4억 달러에서 2019년 7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Korea's Imports to Pacific Alliance

(Unit: Million USD)

	2016	2017	2018	2019	2020(01~07m)
Mexico	3,695	4,407	5,090	6,159	3,548
Chile	3,704	3,803	4,474	3,959	2,026
Peru	1,294	2,132	2,474	2,317	1,666
Colombia	432	651	834	718	409
Total	9,125	10,993	12,872	13,153	7,649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0).

2) 수출입 품목별 규모

한·태평양동맹간의 교역규모는 수출규모보다 수입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품목별 수출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자본재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고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수출한 주요 품목을 분석해보면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요 상위 5개의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각각 17억 달러와 1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승용차에 대한 수출비중이 각각 3억 6천만 달러와 1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출품목 중에서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모두 공통적으로 3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연동강판의 경우 멕시코, 콜롬비아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상위 5개 수출품목에 포함되었지만 칠레, 페루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10대 수출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태평양동맹간의 수출품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품목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태평양동맹과의 교역구조 특성 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교역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6. Korea's Exports with Pacific Alliance by Key Products (2019)

(Unit: Million USD)

	Items	Amount	Trade Balance
Mexico	Automobile componenets	1,783	1,464
	Flats panel displays	1,005	977
	Galvanized iron sheet	658	657
	Synthetic resins	500	491
	Cold rolled steel	403	403
total		4,349	3,992
Chile	Automobiles	369	368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134	133
	Synthetic resins	72	72
	Automobile componenets	58	57
total		683	680
Peru	Automobiles	154	153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65	65
	Synthetic resins	49	49
	Pharmaceutical products	38	38
	Automobile componenets	34	33
total		340	338
Colombia	Automobile componenets	103	103
	Automobiles	85	84
	Synthetic resins	60	59
	Other chemical products in petro	56	55
	Galvanized iron sheet	21	21
total		325	322

Sourc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0).

다음으로 한국이 태평양동맹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분석해보면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 순위 1위 품목은 원유로 2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금속광물이 5억5천만 달러로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에는 동광, 동괴 및 스크랩이 각각 11억 6천만 달러와 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이 5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위로 동광이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유연탄에 대한 수입비중이 5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입의존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상위 5개 수입품목 중에서 커피류의 경우 1억달러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비중 2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태평양동맹국에서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이 유사한 이유는 태평양동맹국들이 공통적으로 자원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수출은 품목이 제한적이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태평양동맹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과도한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동맹은 원자재 중심에서 탈피하여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able 7. Korea's Imports with Pacific Alliance by Key Products (2019)

			(Unit: Million USD)
	Items	Amount	Trade Balance
Mexico	Crude oils	2,804	-2,804
	Other metal minerals	555	-550
	Automobile componenets	318	1,464
	Zinc ores	316	-317
	Health care electronics	134	-119
total		4,127	-2,326
Chile	Cooper ore	1,163	-1,164
	Cooper ingot and Scrap	1,120	-1,120
	Other Fine Chemical materials	461	-453
	Other metal minerals	244	-244
	Pulp	232	-232
total		3,220	-5,539
Peru	Natural gas	569	-569
	Cooper ore	540	-540
	Other metal minerals	337	-338
	Zinc ores	330	-330
	Other processed marine products	103	-104
total		1,879	-1,881
Colombia	Bituminuous coal	510	-511
	Coffee	102	-102
	Cooper ingot and Scrap	57	-58
	Flowers	11	-11
	Aluminium bar and scrap	6	-7
total		686	-689

Sourc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0).

2. 현지투자 및 교역상의 문제점

1) 현지투자의 문제점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남미지역간의 경제협력관계는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지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기준으로 618억 달러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태평양동맹은 남미공동시장에 비해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환경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진출 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국의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대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페루, 칠레, 콜롬비아 순으로 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9년부터는 전기, 가스 등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지역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화전략이기 보다는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우회전략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달리 광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에 2억 6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페루에 대한 투자업종이 광업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페루와의 교역구조를 볼 때 수출의 증대보다는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자원협력을 위한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는 외국인투자촉진법(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내국민대우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는 외국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기, 가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업과 제조업등에 대한 투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는 비교적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엄격한 노동정책은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³⁾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태평양동맹 국가 중 한국의 투자비중이 가장 적은 편으로 광업보다는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8. Korea's Investment to Pacific Alliance

	2016	2017	2018	2019	2020(01~06m)
Mexico	446	460	185	540	132
Chile	44	184	105	39	32
Peru	287	100	266	211	142
Colombia	4	0	4	2	2
Total	781	744	560	792	308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0).

현재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비중을 업종별로 정리해볼 때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전기, 가스 및 광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업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과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광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볼 때 투자업종의 다양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광업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고 투자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법적인 기반으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은 태평양동맹국들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칠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현지인력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교역상의 문제점

한국과 태평양동맹국간의 교역상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무역수지의 불균형과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중남미지역 전체에서 태평양동맹이 차지하는 수입규모는 57%에 해당될 만큼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먼저 멕시코의 경우 한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입의 경우 원유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멕시코와의 교역은 수출입 품목간의 순위변화는 있었지만 수직적 분업구조의 거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입규모는 저조한 편인데 이러한 교역구조의 불균형은 통상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화로망간(ferro manganese), 무계목강관(seamless pipe)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⁴⁾ 2020년 3월부터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마킬라도라(Maquiladora)제도⁵⁾의 폐지와 함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칠레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으며 수입의 경우 동광, 동괴 및 스크랩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칠레 관세청은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규제 품목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중남미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협정체결 이후 교역량의 증가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시장선택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한된 교역상품의 구조적인 특성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천연가스, 동광, 기타 금속광물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루 관세청의 수입규제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역량이 증가하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제한된 품목위주의 교역은 장기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페루와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향후의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동맹 국가 중 교역비중이 적은 콜롬비아의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합성수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유연탄, 커피류, 동괴 및 스크랩 등에 대한 수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조사가 개시되었던 PVC필름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종료가 되었지만 플라스틱 가소제(DOP;di-octyl-phthalate)에 대해서는 반덤핑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역품목의 수가 제한적이고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V. 태평양동맹(PA)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 현지투자의 확대

지난 2019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9, 11).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총 91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태평양동맹 국가별로 체결시기를 정리해보면 지난 1993년 페루와의 투자협정체결을 시작으로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의 순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⁶⁾ 현재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대한

4) 반덤핑관세는 GATT 1994 제6조 및 WTO 부속서 1A에 근거를 두고 있다.

5) 동 제도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원자재를 대상으로 관세 및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6) 한국은 1993년 6월에 페루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 4월에 발표되었다. 1996년 9월에 체결된 칠레와의 협정은 1999년 9월에 발표되었고 2000년 11월에 체결된 멕시코와의 협정은 2002년 6월에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 2010년 7월에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정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별로는 멕시코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태평양동맹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투자업종을 다양화하고 특정 국가로 집중된 투자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⁷⁾ 즉 태평양동맹국가들의 투자환경과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멕시코는 중남미지역내에서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국내기업들은 현지시장 확보 및 북미지역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9년에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을 제정하여 전기와 원자력발전 등 일부 외국인투자 금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투자정책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iguel D. Ramirez, 2000, 145).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왔지만 멕시코의 신산업육성정책을 감안할 때 IT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의 핀테크(FinTech)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T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투자의 다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칠레의 경우에는 비교적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칠레의 외국인투자유치는 투자청(Invest Chile)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 해외직접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칠레의 대표적인 산업은 광업으로 전체 수출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의 대외무역거래에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 그러나 풍부한 광물자원의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레는 광업서비스를 외국인투자의 중점유치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들도 광물자원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페루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는 광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페루의 산업에서 광업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이 광물자원인 만큼 광업에 대한 투자협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페루 FTA협정문 제9.3조⁸⁾에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에 양국간 발효된 투자협정보다 광범위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페루 투자업종에 있어서 신규 유망투자업종은 수산업과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는 광물자원외에 풍부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페루 FTA협정문 제20.5조⁹⁾에서도 양국간의 수산업투자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남미지역은 시장의 특성 상 중소기업의 제조업진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한·페루간의 FTA는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제조업진출 기회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평양동맹국가 중에서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내에서 비교적 높은 투자개방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비중이 적은 편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콜롬비아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6년 7월에는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였는데 법인세의 경우 2022년까지 30%로 감소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국가 인프라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에서 건설플랜트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7) 중남미지역에서 투자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지역별·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자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8) 한·페루 FTA 협정문 제9.3조에서는 “각 당사국에서는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5조에서는 “양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협력을 위한 투자를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태평양동맹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현지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시장선점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도 투자업종의 다변화와 투자규모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역품목의 다변화 및 통상협력의 강화

한국과 태평양동맹국간의 교역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원유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과 태평양동맹국은 제한된 품목을 위주로 편중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교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적용될 경우 통상분쟁과 무역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역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평양동맹국들의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신규품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멕시코의 IT산업 규모가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장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멕시코 IT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보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멕시코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과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의 입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의 경우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Rajagopal, 2008, 252).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10~1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태평양동맹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일 멕시코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어렵다면 후회적으로 태평양동맹을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체결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칠레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가 가장 높은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증가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무역수지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양국의 교역상품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역상품의 다변화를 통한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칠레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때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품목으로 거래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남미지역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으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 판매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칠레의 의료 소비액은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높고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할때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로 다른 수출품목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이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의한 관세철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페루의 자유무역협정 확대정책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페루의 광물자원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건설중장비에 대한 수출이 유망할 것을 예상된다. 특히 무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고 수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시장진입도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페루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중남미지역 전체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페루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고가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의료기기는 제품의 특성상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동맹국 중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가장 적은 콜롬비아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지만 양국 모두 소수의 품목에 대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물류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경쟁력 평가에 부정적인

10)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멕시코는 53위, 콜롬비아는 54위를 기록하였고 칠레는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38위, 페루는 3단계 상승한 52위를 기록하였다.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콜롬비아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만큼 건설중장비에 대한 수출은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수출시장의 확보와 교역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중남미지역은 시장보호주의가 강화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경제통합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중남미지역시장의 진출과 시장선점을 위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남미공동시장과는 무역협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담보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은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양적인 확대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중남미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지만 현재는 시장선점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남미지역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인 멕시코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대 지역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태평양동맹과의 경제협력은 통상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기업들이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한국과 태평양동맹간의 교역은 일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품목의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태평양동맹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별/산업별로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통상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태평양동맹국 중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담보상태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부족과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과 태평양동맹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교역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태평양동맹에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실증분석을 하여 보다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9), *Foreign Direct Investment* (Webpage). Available from <https://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7003003001&boardtypeid=188&boardid=62375>
- KOTRA (2020), *2020 A Regional Approach: Latin America*, 20(032), 13.
- Lavranos, Nikolaos and Nicolas Vieliard (2008), "Competing Jurisdictions Between MERCOSUR and WTO,"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7(2), 209.
- Lim, Tae-Kyoon (2014), "Emerging Regional Bloc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 Issue*, 229.
- Lim, Tae-Kyoon and Si-Un Yi (2013),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Pacific Alliance* (KIEP Working Paper No. 13/14), Seoul: KIEP, 80.
- Park, Chong-Suk and Kil-Nam Lee (2015), "A Study on The Trade Situations after Korea-Latin America FTA",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30(4), 195.
- Rajagopal (2008), "Point of Sales Promotions and Buying Stimulation in Retail Stores", *Journal of Database Marketing and Customer Strategy Management*, 15(4), 252.
- Ramirez, M. (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exico: A Cointegration Analysi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1), 145.
- Vinuesa, R. E. (2006), "The Mercosur Settlement of Disputes System,"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5(1), 77.
- Yoon, Sung-Wook (2019), "A New Trend of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the Case of Pacific Allianc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6(4), 134.